

#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믿기에  
인간의 정함을 근거로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온 명분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혼자 잘난 것처럼 하지  
않고 함께한 형제를 돌아보며  
변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합니다.

나의 나 됨은

신윤식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하신 말씀은  
터무니없는 어불성설로 여겼고  
진리가 자유라 하신 말씀은  
듣기 좋은 사탕발림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은  
그저 상투적인 말장난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어처구니없게도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지금  
이해되고 있으니 은혜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최상의 은혜라 시인하게 되었으니  
내 가는 길에  
준비된 고난이 기다린다 해도  
당신의 구속이 약속으로 있는 한  
유익 됨 시인하고 두려움 없이  
주어진 길 갈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9.30

발행호수 제20권 40호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분노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슬픔에서 기

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모인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것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14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젊은 청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과부의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었기에 기업도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서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의지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과부에게는 전부였고 힘이었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과부에게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초월하는 극한 슬픔과 함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장례 행렬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에 함께 따라왔던 것은 어쩌면 과부의 처지를 그들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과부의 처지는 딱하기만 합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과부가 유일하게 의지했을 아들이 죽었으니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됐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같은 장례 행렬을 만나신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

주일오전설교  
눅 7:11-17

## 예수님의 만남

서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일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절망에 빠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문의 중심 내용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장례식과 같은 상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한 것처럼 천수를 다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문의 과부의 독자처럼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은 호상이라고 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어떤 죽음은 과부처럼 슬픔과 절망만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처럼 다양한 죽음의 현장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래 살고 죽었던 젊은 나이에 죽었던 죽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산자들이 죽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입장에서 죽음의 상황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찾아가 조문하고 통속적인 말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부 아들의 장례식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과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의 상황에서는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장례식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됩니다. 단지 과부와 친분을 생각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이처럼 과부 아들의 장례식 현장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가 되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장례식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부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무슨 멋들어진 말이 있을까요? 슬픔과 절망에 빠진 과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려면 오직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는 그 무엇도 과부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난 과부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죽은 현실만 생각하니 눈물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부가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에만 매여서 울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대로 동행하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자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그 일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과 만남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관심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처럼 내게도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적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병이 고침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같은 기적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신자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고, 과부처럼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는 것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슬픔과 절망만 있습니다. 장례식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슬픔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린 후에 슬픔은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장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과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과부가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같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에 보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영광을 돌린 내용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자도 외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렐다에 사는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벰에 사는 어떤 부인의 외아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모두가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슬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슬픔과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왜 두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찬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에 기쁨과 함께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과부를 슬픔과 절망에서 구원했고, 이들은 죽음에서 건졌으며, 함께 한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찬송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관념으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관념에만 머문 믿음에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본 채 과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슬퍼하고 우는 것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슬픈 일에서도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일으킨 그 기적의 일이 함께 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킨 생명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도 않고 불쌍한 자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생명이 사건을 놀랍고 위대한 사건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쌍한 자입니다. 현실에 불들려서 울고 웃고,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불쌍한 자기의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인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기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았던 신자들은 '매너리즘'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설교로 인해서 설교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사라지고 설교를 위한 설교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곧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믿음 등의 말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뻔한 이야기로 식상하게 들리신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컫는 것은 신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식상한 말로 들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과 삶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하고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간의 열심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적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인간의 행함에 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의 하나님'

주일오후설교  
시 85:1-13

주의 구원

(89강 9.2일 설교)

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지 결코 식상하거나 뻔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뻔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은혜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가 신앙 생활을 잘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덮으셨다면 그것은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로 보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행하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행하심만 높이고 찬송할 뿐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했고 어떤 열심이 있든 그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주관하신 은혜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뿐이기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 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현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행함과 열심이 강조되고 있고 인간의 행함의 여부에 의해 복이 주어지고 하늘에서의 상도 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이했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편 저자는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주의 구원을 믿는 신자는 죄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 역시도 여러분께서는 식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주의 구원을 믿고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의 구원을 말하기는 쉬워도 구원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문제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되는 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신자는 결코 자신의 것을 내어 놓지 않게 됩니다. 다만 내어 놓는 것이라면 자신의 무능함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주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바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충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현재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고 부족함으로 인해 불만만 가득하고 속은 항상 허전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의 가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한 죄의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눈이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에 갇혀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함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따라서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가치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의 만족

이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 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 지로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덮으심으 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 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방 의 신을 섬기면 이방인들처럼 힘과 부요가 주어질 것으 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이 자신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힘이 있다고 믿은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 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헛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 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것을 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한 부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믿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의 구원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돈으로 누리는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은혜로 누리는 미래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주의 구원의 가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보다 은혜로 사는 인생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실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충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인** 간이 자기를 위해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말씀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동산에서부터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는

수요일설교  
렘 17:19-27

**안식일을  
거룩히**

(47장 9.5일 설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를 위한 삶에 마음을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뒤에 감춰져 버리고 인간의 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만 보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도 다르지 않았는데 유다가 자기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인 안식일을 무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그 문으로 출입하는 유다 왕들과 모든 유다 백성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 어떤 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이 출입하는 문과 백성들이 출입하는 모든 문에 서서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쳐야 할 말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1,22절)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안식일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유다 왕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왕이든 관리든 백성이든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25절). 그리고 26절에서는 제물을 여호와와 성전에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전에서의 제사가 그대로 보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 나라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다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계속 경고하셨는데, 왜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멸망을 받은 이유가 우상 문제 때문

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문제 때문입니까? 사실 이 둘은 서로 구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우상과 안식일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을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으로 말씀합니다.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 그 목적은 장사입니다. 결국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벌이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돈벌이에 부지런하면 생존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보면 자기 생존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육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칠일 쯤 쉬셨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보전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을 무시하면서까지 일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생존은 나에게 달렸다는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지 못한 것을 자기 손해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말씀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내 뜻대로 도와주고 책임져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신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위해 안식일 규례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가 처한 현실은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생존의 문제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존을 위해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산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즉 돈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지

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생존의 문제에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돈을 다 끌어 모아도 돈이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지도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생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생명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에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생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말씀도 생존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 고 하고,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삶에 힘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존과 연결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바꿔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지극히 한시적입니다. 70,80이면 끝날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제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자가 어떤 문제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생존의 문제에 마음을 두면 예수님의 구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지금의 내 문제만 크게 부각될 뿐입니다. 신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73장  
교 독 : 54(시126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313장  
성 경 : 눅 7:11-17  
말 씀 : 예수님과 만남(2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6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91장  
기 도 : 김종건 집사  
찬 송 : 524장  
성 경 : 시 89:1-18  
말 씀 : 하나님 찬양(9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1강)

## ■ 교회소식 ■

1.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유년부 예배는 쉬겠습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조길옥 집사

## 중국 방문기③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수없이 외쳤건만 왜 '아이패드를 찾든 못 찾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결국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뜻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일 게다. 겨우 아이패드 하나에 까지도(속마음은 겨우가 아님) 자유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거움을 감지하면서 내가 나왔던 게이트로 황급히 들어가자 다행히 비행기는 아직 그대로 있었고 승무원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었다. 맨 앞에 나오고 있는 기장으로 보이는 분에게 '이 비행기 하얼빈에서 오는 것 맞습니까?' 라고 숨을 헐떡이며 묻자 기장이 맞다면서 무슨 일인지 묻는다. 물건을 두고 내린 것이 있다고 하자, 옆에 있던 여 승무원이 '아~ 아이패드 두고 내리셨어요' 라고 한다. 순간 '아 있나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맞다고 하자 안에 들어가 보란다.

기내로 들어가니 벌써 눈치를 챘는지 다른 승무원이 '아이패드 두고 내리셨죠?' 라며 웃는다. 그렇다고 하자 다시 누군가를 부르며 아이패드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내 앞에 앉아 있던 바로 그 승무원이 봉투를 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승객들이 내릴 때 의자에 웬 봉투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아이패드가 있어서 내 것인 줄 알고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이패드를 잠깐 사용한 것을 보고 기억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일찍 알고 와서 다행이라고 한다. 입국장을 나가게 되면 승무원이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하고 또 센터에 가서 찾는 일도 번거롭기 때문이란다. 어쨌든 그렇게 무사히 아이패드를 다시 손에 쥐고 돌아오면서 목사님께 찾았다고 전화를 하는데 온 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고 긴장이 풀려 그런지 다리에 힘이 없다.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을 그렇게 한비탕 소동으로 마무리 하고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하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승무원과 안면을 악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하신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서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화물을 올려놓은 있는 고무벨트가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 간혹 내 가방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서 집어 들어 살펴보면 내 것이 아니다. 고무벨트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들을 보면 여러 색깔로 띠를 둘러놓은 것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었다. 비슷비슷한 가방이 많기에 자기 가방을 쉽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참을 기다리니 사모님의 가방이 나오고 목사님 것과 내 가방도 나온다. 사모님의 가방 한 개를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다. 외국인 입국 심사대가 따로 있던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목사님이 대구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니 먼저 가라고 하셔서 사모님께 인사도 못한 채 서둘러 국내선 타는 곳으로 바빠 향했다. 그런데 국내선 타는 곳이 너무 멀다. 안내데스크에서 물으니 3층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무리 걸어도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지 않는다. 출발 시간은 7시 20분인데 벌써 7시 5분이다. 겨우 3층 국내선이 있는 곳을 찾아 발권을 하고 가방을 다시 수화물로 부친 후에 탑승을 하자 몇 분 후에 바로 이륙한다. 한숨을 내쉬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정리하여 메모를 하는데 어느새 곧 대구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창밖에는 어둠 속에 대구의 야경이 깔려 있다. 이륙한지 50분쯤 지나서 공항에 도착을 하고 밖으로 나오니 둘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은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지루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